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5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소수자도 스포츠 향유할 권리”

송정은 연합뉴스기자

스포츠워싱(SPORTS-WASHING)

여자월드컵도 인권 논란...사우디 후원에 ‘스포츠워싱’ 반발

구경하 KBS NEWS 기자

골프 이어 축구까지...오일머니 '무한식탐'

허종호 문화일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잇따르는 스포츠 성폭력...인권위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강주현 머니투데이 기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14명 적발해 조치

고미혜 연합뉴스 기자

2024 파리올림픽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놓고 국제사회 분열, IOC '곤혹'

윤현 오마이스타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인권위 "소수자도 스포츠 향유할 권리"

YONHAP NEWS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권(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2010년 만든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12년 만에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헌장에는 건강증진과 시민 자질 고양, 평화 실현 등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새로 담겼다.

헌장은 성별과 성적 지향·장애·나이·재산·운동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적절한 대응체계·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개정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교육하라고 했다.

여자월드컵도 인권 논란... 사우디 후원에 '스포츠워싱' 반발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오는 7월 열릴 여자 월드컵에서도 선수들이 인권 문제에 항의하는 모습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이 2023년 여자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가 됐다는 소식에, 개최국 호주와 뉴질랜드 축구협회는 물론 선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협회는 공동성명에서 "개최국과 협의 없이 후원사 계약이 결정된 데 매우 실망했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선수 노동조합은 집단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FIFA가 사우디 관광청을 후원사로 선정하기로 확정하면, 선수노조가 선수들이 의견을 모으고 인권단체·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항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유럽 7개 국가 선수들이 개최국 카타르의 성 소수자 탄압 문제에 항의하는 '무지개 완장' 착용을 시도하고, FIFA가 이를 금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 "사우디의 여자 월드컵 후원은 평판 세탁용" 비판

이처럼 개최국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우디가 여성 차별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성 평등을 추구하는 여자 월드컵을 후원함으로써 인권 탄압국이라는 국제 평판을 '세탁'하려는 이른바 '스포츠 워싱(sports washing)'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월드컵은 여자 스포츠 가운데 최대 스포츠 행사로 꼽힙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번 대회에서 '축구에서 성 평등 실현의 중요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고 미디어에서 여성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축구를 즐기는 미래 세대 소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2018년까지 여성의 스포츠 활동은 물론 축구경기장 입장도 금지했던 나라입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해 겨우 생겼습니다. 최근에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성은 여전히 주요 결정을 할 때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 후견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성은 기소되거나 구금될 수 있고 경제활동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이런 남성 후견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체포돼 장기간 구금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올린 여성들은 지난해 30~40년의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사우디가 여성 인권을 탄압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축구계는 인권단체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국 축구협회는 FIFA에 보낸 성명에서 "성 평등은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양국의 축구협회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우디가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했지만, 여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를 후원사로 받아들인 FIFA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호주 여자축구 국가대표 주장 출신이자 호주 프로축구선수협회 공동대표인 케이트 길은 "FIFA가 2016년 국제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FIFA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축구의 가능성을 약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FIFA에 "사우디가 여자 월드컵을 스포츠 워싱에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사우디에 인권 개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장 계속

■ 국제 스포츠계 '큰 손'된 사우디...논란 반복

사우디가 스포츠를 통해 국제 평판을 세탁하려 한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2020년대 이후 국제 스포츠계에 큰 손으로 등장하면서, 스포츠 워싱 논란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는 2021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를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미국 PGA 투어에 맞서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를 출범시켰습니다. LIV 시리즈는 한국 돈으로 300억 원이 넘는 2천 5백만 달러의 총상금을 걸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유럽여자투어(LET) 아람코 사우디 레이디스 인터내셔널 역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스폰서로 나서면서 올해 대회 총상금을 작년보다 5배 많은 5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연관 기사\] 세계 골프계에 '돈의 전쟁' 일으킨 LIV 골프...스포츠 워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7829>

포르투갈의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사우디 프로축구 리그로 영입한 알 나스르FC의 구단주 역시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 돈으로 2,700억 원이 넘는 2억 유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우디가 호날두를 거액으로 영입한 건 2030년 월드컵 유치의 홍보대사를 맡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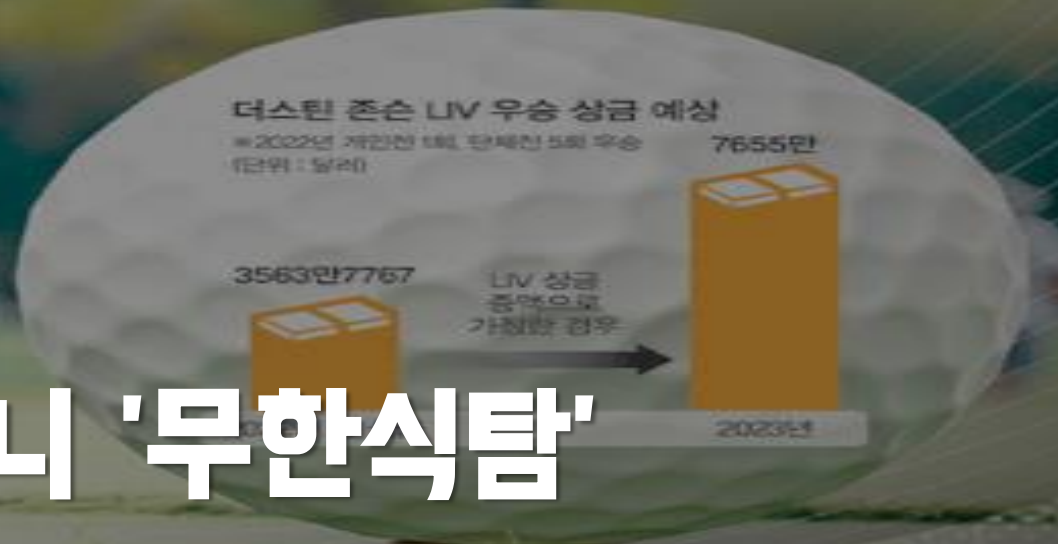
사우디는 실제로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1일 2027년 남자 아시안컵 개최지로 선정됐고, 2026년 여자 아시안컵 대회도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2030년 또는 2034년 월드컵 개최 신청도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우디가 후원하거나 주관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늘어나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은 선수들에게 사우디가 선수들의 명예와 유명세를 스포츠 워싱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스포츠 투자는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교장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포츠 워싱 논란에 대해 "무지하고 말도 안되는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스포츠에 대한 재정 지원은 경제 투자, 건강 증진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중계권과 티켓 판매는 수익이 되고, 자국 내 스포츠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알 카심 사우디 축구연맹 사무총장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스포츠 유치는 사우디 경제 개혁 조치인 '비전 2030'의 하나"라면서 "사우디가 국제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사우디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이어 축구까지...오일머니 '무한식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머니'를 앞세워 골프에 이어 축구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스폰서십과 외교력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포함한 국제축구연맹(FIFA)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사우디는 1일(한국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33차 AFC 총회에서 2027년 아시안컵 유치를 확정했다. 2027년 아시안컵은 인도,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치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했고, 사우디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로써 아시안컵은 3회 연속 중동에서 열린다. 유례가 없는 편향성이다. 2019년 아시안컵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됐고, 중국이 유치했다가 반납한 2023년 아시안컵은 카타르로 넘어갔다. 우리나라는 2023년 아시안컵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카타르에 밀렸다. 1956년 출범한 아시안컵은 아시아 최고 권위의 국가대항전으로 4년마다 열린다. 사우디는 또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도 배출했다. FIFA 평의회는 FIFA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이날 진행된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야세르 알미세할 사우디축구협회장은 AFC 46개 회원국 투표에서 유효표 45표 중 35표를 획득, 셰이크 아마드 칼리파 알 타니(카타르·40표), 다시마 고조(일본·39표), 마리아노 V. 아라네타 주니어(필리핀·34표), 다툽 하지 하미딘 빈 하지 모흐드 아민(말레이시아·30표)과 함께 5명의 당선자에 포함됐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9표를 받는 데 그쳐 7명 중 6위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2017년 FIFA 평의회 위원에 당선됐으나 2019년 재선에 실패했고, 겸직하던 AFC 부회장직도 연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축구는 국제축구 외교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2023년 아시안컵 유치에 실패했다. 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도전, 한국축구의 외교력을 넓힐 기회를 노렸으나 아쉬움을 남겼다.

바레인 국적의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칼리파 AFC 현 회장은 회장직에 단독 입후보, 손쉽게 연임에 성공했다. 바레인은 사우디와 언어, 문화, 종교를 공유하며 실제 외교에서도 뜻을 함께 모으는 이웃 국가다. 셰이크 살만 회장은 당연직 FIFA 부회장도 겸임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 머니를 앞세워 골프, 축구 등 스포츠 전방위로 발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엔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PIF)의 후원으로 LIV골프인비테이셔널이 출범해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대립각을 세웠다. 또 PIF는 지난 2021년 컨소시엄을 형성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했다. 사우디는 막대한 투자로 팬들에게는 즐거움, 선수들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여성 권리와 사형제도 등 인권침해 문제를 스포츠로 세탁하는 '스포츠 워싱'을 저지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우디는 오는 7월 개막하는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2일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사우디 관광청이 올해 여자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지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공동 개최국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FIFA에 해명을 요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축구협회는 사우디 관광청의 공식 후원사 지명에 대해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국 축구협회는 반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사우디의 '스포츠 워싱' 논란 탓으로 여겨진다.

잇따르는 스포츠 성폭력... 인권위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게 개정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산하기관에서도 이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된 인권 헌장에는 스포츠의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담았다. 스포츠권을 비롯해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했다.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과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적절한 대응체계·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 모색 등의 지침도 제시됐다.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도 강조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과 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나이, 출신 민족, 재산, 운동능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0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과 각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도 빙상, 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다양한 인권 문제 대응 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헌장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 리플릿 등을 발간해 스포츠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헌장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진행하는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증진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STOP!
아동학대

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의 인권은 나라의 미래,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 14명 적발해 조치

YONHAP NEWS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천357곳의 종사자 260만3천21명을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이중 6명은 시설 운영자였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놓고 국제사회 분열, IOC '곤혹'

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2023.02.03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 선수들의 2024 파리 올림픽 참가를 놓고 국제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참가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확산하자 해명과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앞서 IOC는 지난 26일 "러시아·벨라루스에서 어떤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두 나라 선수들은 국기나 국가 등 자국을 대표하는 모든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존에 내린 징계를 재확인하면서도 "모든 선수는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국적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중립국 자격으로 참가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최전선 격전지인 동부 바흐무트로 초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관련 기사: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 파리올림픽 참가 안돼" 전방위 호소](#)).

그러나 IOC는 이날 바흐 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거절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과거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 차별) 정책으로 IOC에서 퇴출당해 1964~1988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것을 들어 러시아·벨라루스의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IOC는 유엔 인권 전문가를 인용해 "당시 남아공은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고, 내전 때 학살로 유엔의 제재를 받았던 유고슬라비아 선수들도 중립국 개인 자격으로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러시아·벨라루스를 제재하고 있지 않다"라며 이들의 올림픽 참가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벨라루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발로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IOC의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

유럽 국가들 "올림픽 보이콧 불사" ... 미국은 IOC '지지'

국제사회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기구 및 개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그들이 자국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이 중립국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장-피에르 대변인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올림픽에서 러시아·벨라루스 국기와 국가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결집해왔고, 러시아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에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폴란드, 라트비아, 영국,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라트비아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올림픽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고 IOC를 압박했다. 카밀 보르티니치우크 폴란드 체육부 장관은 "IOC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최후통첩'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을 초청하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르즈 티크머스 라트비아 올림픽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이 어떤 자격으로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벨라루스가 스포츠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만약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된다면 현재 열리고 있는 파리 올림픽 예선 경기도 보이콧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우크라 "전쟁, 살육, 파괴 옹호자" 맹비난... IOC "증상모략"

한편,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NOCU)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어 파리 올림픽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고문은 이날 트위터에 "IOC는 전쟁, 살육, 파괴의 옹호자"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며 집단 학살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러시아의 돈줄이 올림픽의 위선을 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피 냄새는 나지 않는 것 같다"라며 "그렇죠 바흐 위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IOC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포돌리아크 고문의) 증상모략 발언을 거부한다"면서 "이런 발언은 생산적인 논의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자료 출처: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89966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주간 스포츠 소식

"IOC, 중립 조건 러·벨로루시 선수 올림픽 출전" 찬반 팽팽

https://news.geneva.com/ko-kr/news/article/news_a/202302021705515789da65389f94_1/article.html?mc=20230202172223_U

대한하키협회, 유소년스포츠 기반구축 지도자 교육 실시

<https://www.stnsport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2>

한국도 트랜스젠더가 격투기 출전?...인권위 황당 개정안 공개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621>

사우디, 여자월드컵 후원. 지금도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302010730003&sec_id=520401&pt=nv

골프계 이끄는 '오일머니'...아시안투어도 '별들의 전쟁'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7306&clD=10504&pID=10500

"향저우亞게임 향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달1일 이천선수촌서 훈련개시식[장애인체육SNS]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1310100188080023520&servicedate=20230130>

장애인 선수단 지원나선 쿠팡... "체육계 신선한 바람"

<https://www.news1.kr/articles/4944080>

[영동소식]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036400064?input=1195m>

'장애인 동계스포츠 대축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2060100042710005502&servicedate=20230206#rs>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